금주의 법구—〈보왕삼매론〉
세상살이 어려움 없길 바라지 말라.
오만하고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근심과 곤란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29 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 단기 4351년 음력 12월 11일) 2019년 1월 16일 수요일

## 공공기관 '佛心' 결집 지역 거점포교 나선다

### 조계종 공공기관 연합불자회 결성 추진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이 지역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불자들을 중심으로 연합불자회를 결성해 지역 거점포교에 나선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직장직능 불교신행단체 조직화 사업 일환으로 연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불자들의 구심점이 될 지역 공공기관 연합불자회를 추진하고 있다. 원주혁신도시를 시작으로 전북, 나주, 대전 등에서 추진 중"이라고 1월 9일 밝혔다.

현재 조계종에는 서울교통공사법우회, 국민건강보험공단불자회 등 직장 내 불교 신행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직장직능 불자회가 있다. 하지만 지역별 직장을 통합하는 불자회 구성은 처음이다. 특히 지방 혁신도시로 공공기관들이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맞춰 직장직능과 지역을 연결하는 포교 종책이어서 이목을 끌고 있다.

가장 먼저 연합불자회가 구성되는 지역은 원주다. 원주 혁신도시 내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3개 공공기관이 있으며 이들 기관에는 산별 불자회가 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이들 불자회와 지난해 12월 간담회를 갖고 심무경 국립공원관리공단 감사와 안무열 적십자혈액원 감사실장을 '원주혁신 공공기관 연합불자회'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로 선임하고, 이상권 국민건강보험공단 불자회장, 최동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불자회장 등을 집행위원으로 추진위를 구성했다.

추진위는 오는 2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혜민 스님 초청 강연과 함께 연합불자회 창립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안무열 창립추진위 공동대표는 "혁신도시가 전국에 있지만 생활여건이 불안하다. 젊은 사람은 가족단위로 이사를 오지만 나이든 사람들은 근무지에 가족과 떨어져 업무를 본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동 신행활동은 생활 안정이나 업무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별기관의 불자 수가 적은 상황에서 불자로서의 정체성도 연합불자회로 지켜갈 수 있다"면서 "첫 시작이기에 다른 혁신도시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매월 정기법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중앙신도회는 전북과 나주혁신도시에도 연합불자회 설립을 추진 중이다.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등 공공기관에는 총 12개의 산별 불자회가 있다. 나주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에 16개의 산별 불자회가 있다. 또 대덕연구단지 내에도 성불회 등 2개 단체가 있다.

이들 지역에서 '전북혁신 공공기관 연합불자회', '나주혁신 공공기관 연합불자회', '대덕연구단지 연합불자회' 등이 연내 구성될 예정이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지역별 공공기관 연합불자회 결성에 이어 신행중심도량도 배정하고, 이들 단체와 기존 신행단체의 연계도 추진해 역량을 배가시킨다는 방침이다. 전북혁신 공공기관 연합불자회는 전주운전기사불자연합회, 전북도청불자회, 전주교도소직원불자회 등과 네트워크를, 나주혁신 공공기관 연합불자회는 철도청광주지역불자회, 해남농협불자회 등 유관 불자회 등과도 연계된다.

장성원 조계종 중앙신도회 행정지원팀장은 "직장직능 불자회의 가장 큰 애로점은 신행활동이 쉽지 않다는 점이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사찰을 신행도량으로 연결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권역별 교구신도회를 상위로 지역

**2월 '원주공공기관 불자회' 발족**
**나주, 대전, 전북 지역서도 설립**
**중앙 · 교구신도회 · 사찰 연계 높여**
**연합불자회 통해 활동 역량 강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맞춘 조치**
**"다양한 직군 불자회 구성 계획"**

직장직능 불자회와 개별 신도단체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역포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선 조계종 포교원 신도팀장은 "지역 공공기관에서는 그동안 신행단체가 활성화된 이웃종교계에 비해 소외감을 느끼는 불자들이 많았다. 불자로서의 자부심 확대와 함께 다양한 활동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존 직군별 불자회의 통합 네트워크도 추진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1월 중 감정평가사 불자회의 종단 신도단체 등록 절차를 지원하고, 세무사불자연합회 · 공무원불자연합회 등과 연합법회를 주선할 예정이다. 현재 감정평가사불자회는 수도권 지역 회원 30여 명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은 "다양한 불자네트워크를 통해 불자들의 사회적 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다"며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합불자회 구성을 시작으로 다양한 직군별 불자회의 힘을 모으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행력과 지도력의 상징인 대종사가 탄생했다. 사진은 1월 8일 팔공총림 동화사서 열린 법계 품서식에서 대종사 법계를 받은 원로의원 우송 · 일면 · 원행 스님(사진 왼쪽부터)이 가사를 정대한 뒤 광도중생 원력을 다짐하는 모습.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 대종사들 "광도중생 원력으로 정진"

### 조계종, 1월 8일 신년하례 및 대종사 법계 품서식

조계종단 최고 법계이자 수행력과 지도력의 상징인 대종사 법계를 원로의원 우송 · 현호 · 일면 · 원행 스님이 품수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월 8일 팔공총림 대구 동화사 통일기원대전서 '조계종 종정예하 신년하례 및 대종사 법계품서식'을 봉행했다. 조계종의 공식 신년하례인 이 행사에는 종정 진제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장 세민 스님, 총무원장 원행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 각 교구본사 주지 등 종단을 대표하는 200여 스님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대중은 새해 첫날 석가모니불을 비롯한 삼보와 호법신중, 대중에게 올리는 불교 신년하례식인 통알을 하고, 종정 및 원로의원 스님들에 대한 신년하례를 진행했다. 이어진 법계품서식에서는 종정 진제 스님이 대종사법계 품수자인 우송 · 현호 · 일면 · 원행 스님에게 법계증과 가사를 수여했다. 신임 대종사 스님들은 가사를 정대하고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불자를 받아든 뒤 "광도중생의 대원과 번뇌 불생의 대열반에 이르도록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종정 진제 스님은 "모든 대중은 대종사 스님들을 제불제조(諸佛諸祖)와 같이 모셔주시고, 대종사들께서는 자비와 연민으로 사해오호(四海五湖) 중생들과 함께하며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저 언덕으로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 트렌드 분석 · 新아이디어, '기업 기부' 이끈다

### 동행, 기업 후원 증가… 새로운 시도에 높은 호응

**삼성 문화유산탐방 50% 증액**
**KB · 하나금융 지원 규모 늘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에 기업 차원의 후원이 늘어나고 있다. 아름다운동행은 1월 8일 "예년 대비 기업 후원액이 총 2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아름다운동행의 '청소년 세계문화유산탐방&나의유산만들기' 사업 지원액을 예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증액했다.

KB국민카드도 저소득 가정 초등학생에게 학용품을 전달하는 '책가방보내기' 사업 지원액을 예년 1억 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KEB하나금융그룹도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의 기자재 비용 4000만원 지원을 시작했으며, 향후 아이연탄맨 사업기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경화상사도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지원기금을 매달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기업 차원의 후원이 증가하는 이유는 그동안 불교계에서 하지 못한 기부트렌드를 반영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삼성그룹 관계자는 "'세계문화유산탐방&나의유산만들기'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문화적 소양을 쌓고 직업군의 성인 멘토와 교감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았다"고 평가했다.

최현웅 아름다운동행 주임은 "책과 SNS 등을 통해 트렌드 변화를 파악하고 수시로 기획회의를 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에너지빈곤층 연탄 나눔인 '아이연탄맨' · 한부모가정 위한 '위시박스' · '더불어 저금통' · 독거어르신 사찰음식 지원 '동행수라' 등 젊은 층을 비롯한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춘 가치혼합경영연구소장은 "최근 트렌드는 '청년' '어르신' 등을 넘어 '자립' '가족정서'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기업 측에서도 트렌드를 주도하고 효과가 좋다면 후원이 몰리게 돼 있다"며 "월드비전의 경우 선교 명시에도 후원자의 60% 이상이 비기독교인이다. 불교 내 고정관념을 버리고, 외부 트렌드까지 주도할 때 자연스럽게 불교의 사회적 역량 강화, 후원 증대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지원기자 jayjace@hyunbul.com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 신행담 모음집
공부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